

野, '거부권' 韓 탄핵 고심... '내란특검 지켜보자' 무게

의총서 결론낼 듯...당내선 '즉각 추진' 의견 적지않아 지도부, 특검 거부권·헌법재판관 임명 '레드라인' 설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6개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지도부 내에서는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대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일반특검' 등의 처리 문제까지 지켜보자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즉시 탄핵에 착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조만간 열린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이 같은 흐름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재의요구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결론 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했지만, 이 대표가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는 등 이를 유보해 둔 상태다.

특히 지도부 내에서는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은 못지 않게 실제 탄핵을 추진할 시 민주당에 비판 여론이 제기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정책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로 연결짓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의 하나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은 탄핵 추진을 잠시 보류하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사용을 '레드라인'으로 삼아 한 권한대행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2개 특검법 중 '내란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쓴다면, 당내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론이 견장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같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섭다고 하는데, 언제든 탄핵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것이 한 권한대행에게는 특검 수용에 대한 큰 압박이 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한 권한대행에 대해 특검 수용 압박을 이어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명령은 여전히 살아 있다"며 "엄중히 경고한다.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고 말했다.

일단 지켜보되 이후엔 곧바로 탄핵에 착수할 수 있다는 '마지막 경고'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별도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이 '레드라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명을 지연시키면 언제든 탄핵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탄핵심판서 파면될 것' 73%

전국지표조사 결과... '현재 결론 빨리 내려야' 68%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가급적 빨리 내야 한다는 의견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최장 180일이 소요되는 현재 탄핵 심판에 대해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8%에 달했다.

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30%였다.

응답자의 지지 정당 성향에 따라 탄핵 심판 기간에 대한 견해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2%,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99%가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8%로 더 많았다.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고 본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73%였다.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본 이는 21%였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는 '잘된 결정'이라고 답한 비율이 78%에 달했다.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자는 18%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16%,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79%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8%,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에게 국가기관을 신뢰하는지 물었더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67%가 '신뢰한다', 2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원에 대해서는 48%, 지방자치단체는 46%, 경찰은 45%, 국회는 41%, 정부는 31%, 검찰은 28%가 각각 신뢰한다고 답했다.

현재 국가 경제에 대해 '나쁘다'고 본 사람이 88%로 '좋다'고 한 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8.5%다. /연합뉴스

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근거 없다"

"선거제도 근간 흔드는 것...절차 이해 부족 여론 선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이후 일부 유튜브 등이 부정선거 의혹을 반복 제기하는 데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재차 일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유튜브 등이 부정선거의 근거로 제시해온 정황과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선거관리 시스템을 악용한 '개표 결과 조작' 주장에 대해선 "선거관리 시스템은 개표소에서 개표한 결과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이라며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떤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1대 총선 수도권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후보자 간 시도 평균 득표율이 '민주당 63% 대 통합당 36%'로 일정하다는 주장도 구체적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선관위는 "전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6.7%)만이 63대 36의 비율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득표 비율만으로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근거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22대 총선에서 조작된 사전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었다는 의혹, '투표함 바뀌기'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21대 총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 중에서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선거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 부각해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건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앞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점검을 거론하자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연합뉴스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송두환 등 17명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송 대리인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17명의 변호사가 19일 선임됐다.

김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지낸 이광범 변호사 등 3명이 대리인단 공동 대표를 맡았다.

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진한 변호사가 대리인단의 실무 총괄을 담당한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가상 의원은 대리인단 인선 기준으로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

의,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정확한 분, 헌법재판뿐 아니라 수사와 형사재판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20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연다. /연합뉴스



초당대학교

취업성공!
탁월한 선택!

항공 특성화 대학

초당대학교

www.cdu.ac.kr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

항공모빌리티학과

항공관광서비스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스포츠경영지도학과

뷰티디자인학과

호텔조리베이커리학과

군사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소방행정학과

의약관리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글로벌신재생에너지학과

글로벌실버케어학과

글로벌조선학과

글로벌화학기계공학과

국제학과

신입생 정시모집 2024년 12월 31일(화) ~ 2025년 1월 3일(금)

편입생모집 2024년 12월 30일(월) ~ 2025년 1월 10일(금)

학부별 학과

간이대학

취업지원센터

학생지원센터